

Resolving to Pray: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anuary 4, 2024

Aloha MPC ‘Ohana,

It is January 4, and a brand new year has arrived. I’ve never been good at forecasting the future, but as I look ahead into 2024 I do see some things that I’m excited about and other things that I have high hopes for. I also see certain tasks which lie ahead, though, some of which I anticipate may be challenging or just plain hard. And then there are all of the “unknowns” too.

I think it was former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¹ who once talked about “known unknowns” and “unknown unknowns.” But for my part, all I know is that it’s highly likely a lot of things will happen before this new year is done that I do not know about or foresee at this moment in time.

In fact, January 1 was not even done before I saw something happening in real time, which I never would have foreseen before the fact. It was like this:

On the afternoon of January 1, Nan and I were in my car, heading for home. We were on the Kamehameha Highway northbound and had just gone under the freeway overpass into Wahiawa. The light at Olive was red and traffic on our side of the road was backed up.

But then, on the southbound side of the highway, a white vehicle sped by, followed by what appeared to be about twenty police cars with lights flashing in hot pursuit. “Gee, that looks serious,” I said to Nan. “I wonder what’s going on?”

She whipped out her cellphone, and within just a couple of minutes read me the answer to my question. The police were pursuing a man in a stolen vehicle who was suspected of having shot someone. He was reported to be “armed and dangerous.” And, in fact, later that same night we heard the news that the car chase which we’d witnessed had ended tragically, on a busy Honolulu Street, with a gun fight. The suspect was dead,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hospitalized.

It was sobering to think of having seen a small part of that story as it unfolded in real time. It was sad to think of how many lives had been forever changed in the space of a few hours on a New Year’s Day. And it was likewise a reminder to me that, on any given day, one never knows what may literally be just around the corner.

As of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two aforementioned police officers are still in the hospital, and I’m praying for them both. And for their families. As well as for all those who were directly impacted by the events I’ve just described.

¹ Please don’t mistake this or any quote from a current or former political figure as a partisan comment on my part. I assure you, it is not offered in a partisan spirit or with that intent.

Over the last year or two, certain public officials have sometimes been criticized for mouthing words about offering “thoughts and prayers” in the wake of tragedy. Whether those criticisms are fair or unfair is not for me to presume to judge. But I do believe, nonetheless, that sincere prayers matter. I believe that prayer can and does make a difference.

And I likewise know that, for all of 2024’s known unknowns and unknown unknowns, prayer is something that I can do – something that we all can do. In fact, looking at the state of our world just four days into 2024, it seems to me that Planet Earth and her people need all the prayers we can get.

So let’s resolve to do that this year – to pray our way through 2024.

On that note, yesterday I saw a post on Facebook from the Co-Moderator of the PC(USA)’s General Assembly, Rev. Ruth Santana-Grace (who visited MPC last Summer). Her post featured a prayer for a new year, originally written by the great African-American theologian Howard Thurman. The prayer goes like this:

“God, grant that I may pass through the coming year with a faithful heart. There will be much to test me and make weak my strength before the year ends.

“In my confusion I shall often say the word that is not true and do the thing of which I am ashamed. There will be errors in the mind and great inaccuracies of judgment. In seeking the light, I shall again and again find myself walking in the darkness. I shall mistake my light for Your light and I shall drink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choices I make.

“Though my days be marked with failures, stumblings, and fallings, let my spirit be free so that You may take it and redeem my moments in all the ways my needs reveal.

“Give me the quiet assurance of Your love and presence. And grant that I may pass through the coming year with a faithful heart. Amen.”

And Amen.

Me ke aloha,
Pastor Ron

기도하겠다는 결심: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1월 4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미래를 잘 예측한 적이 없지만, 2024년을 내다보면 기대되는 부분과 기대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일부는 도전적이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도 모두 있습니다.

[한때](#_ftn1) “알려진 미지”와 “알려지지 않은 미지”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전부는 이 새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1월 1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1월 1일 오후, 난과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메하메하 고속도로 북쪽 방향에 있었고 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로 막 와히아와로 들어섰습니다.

올리브의 신호등은 빨간색이었고 우리 쪽 도로의 교통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남쪽에서 흰색 차량이 질주했고, 그 뒤를 20여 대의 경찰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이런, 심각해 보이네요.” 나는 Nan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분도 안 되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 주었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타고 누군가를 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장하고 위험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가 목격했던 자동차 추격전이 변화한 호놀룰루 거리에서 총격전으로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의자는 숨졌고, 경찰 2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의 작은 부분을 봤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설날 몇 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삶이 영원히 바뀌었는지 생각하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떤 날이든 문자 그대로 바로 모퉁이에 무엇이 닥칠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앞서 언급한 경찰관 두 명이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방금 설명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정 공직자들이 참사 이후 ‘생각과 기도’를 하겠다는 입으로 발언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 비판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2024년의 알려진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과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이 된 지 4일 만에 우리 세계의 상태를 살펴보면, 지구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는 미국장로교 총회 공동총회장인 Ruth Santana-Grace 목사(지난 여름 MPC를 방문했습니다)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원래 위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자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이 쓴 새해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를 신실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시험하고 내 힘을 약화시킬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혼란 속에서 종종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마음에 오류가 있을 것이며 판단이 크게 부정확할 것입니다. 빛을 추구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빛을 당신의 빛으로 착각할 것이며 내가 내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나날이 실패와 걸림돌과 넘어짐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나의 영을 자유롭게 하셔서 당신께서 나의 필요를 드러내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순간을 구속하실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조용한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충실한 마음으로 내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멘.

나 알로하,

론 목사

[[1]](#_ftnref1) 이 글이나 현직이나 전직 정치인의 인용문을 제 입장에서 당파적인 논평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는데, 그것은 당파적 정신이나 그런 의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